

한·중·일 전통가구의 유형에 따른 특성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by Type of Korean, Chinese and Japanese  
Traditional Furniture

주저자 : 김진옥 (Kim, Jinok)

경성대학교 공예디자인학과

## 1. 서론

-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한·중·일 전통가구의 유형

- 2-1. 한·중·일 전통가구의 유형 분류
- 2-2. 한·중·일 전통가구의 유형별 특징
- 2-3. 분석 대상 가구

## 3. 한·중·일 전통가구의 기능적 특성 비교

- 3-1. 가구-사물(Object) 유형
- 3-2. 가구-인간(Human) 유형
- 3-3. 가구-공간(Space) 유형

## 4. 한·중·일 전통가구의 조형적 특성 비교

- 4-1. 가구-사물(Object) 유형
- 4-2. 가구-인간(Human) 유형
- 4-3. 가구-공간(Space) 유형

## 5. 결론

## 참고문헌

### (要約)

현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의 조류에 맞추어 자국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노력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타문화와 우리의 문화를 비교하는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 지역의 문화는 독립적으로 자연발생된 것이 아니라 인접 국가나 문화와 관련을 가지면서 변화, 발전하는 것이므로, 문화적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국의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더불어, 타문화와의 상호비교연구를 통해서 각각의 문화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중국·일본은 예로부터 사회문화적으로 활발한 교류를 통해 서로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도 독자적인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아시아권 중에서 한국 문화의 차별화된 정체성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4~19C 한국·중국·일본의 전통가구의 유형을 분류하고, 가구의 유형별 특성과 조형적 특성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보다 객관적으로 우리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동양적인 것과 한국적인 것에 대한 혼돈으로부터 보다 명확한 우리문화의 재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 (Abstract)

These days, contemporary people's interest in culture is higher than ever, and in response to such a current trend, each country is making efforts to search for its identity in various areas, and conducting research to compare its culture with that of other countries.

The culture of a region does not develop independently or spontaneously, but it changes and evolves in connection with neighboring countries or cultures. Thus, in order to understand our own cultural characteristics properly, we need not only to make an in-depth study in our own culture but also to compare it with other cultures and understand their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clearly. From old times, Korea, China and Japan have had great influences on one another through active socio cultural exchange and at the same time they have their own unique cultural characteristics. Unfortunately, however, the distinguished identity of Korean culture has not been recognized properly.

The present study purposed to classify Korean, Chinese and Japanese traditional furniture from the 14th~19th century by type, and compare their characteristics by type as well as their general formative characteristics.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improve our objective understanding of our own culture. Furthermore, it will provide a ground for re-interpreting our culture to distinguish Korean culture from Oriental culture.

### (Keyword)

Korea, China, Japan, traditional furniture, characteristics by type, functional characteristics, formative characteristics

## 1. 서론

###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현대는 시간과 공간의 벽이 허물어지면서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게 되어, 어느 시대보다도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조류에 맞추어 자국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노력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타문화와 우리의 문화를 비교하는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 지역의 문화는 독립적으로 자연발생된 것이 아니라 인접국가나 문화와 관련을 가지면서 변화·발전하는 것이므로,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더불어 주변 문화와의 상호비교연구를 통해서 각 문화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한국·중국·일본은 예로부터 사회문화적으로 활발한 교류를 통해 서로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도 독자적인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아시아권 중에서 한국 문화의 차별화된 정체성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한국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아시아권의 주변문화와의 비교연구를 통해 한국문화의 차별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중국·일본의 전통가구의 유형별 기능적 특성 및 조형적 특성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보다 객관적인 우리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동양적인 것과 한국적인 것에 대한 혼돈으로부터 보다 명확한 우리문화의 재해석을 가능하게 하여, 보다 올바르게 한국적 문화정체성을 반영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그리고 한국적인 것을 디자인에 응용함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이미지나 조형요소만을 인용하기 보다는,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를 충분히 이해한 후 적용함으로써 보다 한국적인 문화를 잘 살릴 수 있을 것이다.

### 1-2. 연구 범위 및 방법

연구 대상의 시대적 범위는 14~19C로서 한국의 조선시대, 중국의 명(明)~청(淸)시대, 일본의 무로마치(室町)~에도(江戸)시대에 해당된다. 시대적 범위를 이와 같이 설정한 이유는 이 시기가 문화적으로 각국의 전성기에 해당되며, 비교적 현존하는 유물이 많고, 지금까지도 문화적으로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편, 일상 생활양식에서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가구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왕실가구를 제외한 중상류층의 주거에서 사용했던 생활가구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으며, 일본의 경우는 에도시대에 상인을 중심으로 한 서민가구도 상당히 발달하였으므로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연구 방법으로는, 우선 한·중·일 전통가구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한 분류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구분한 가구의 유형별 특성을 개략적으로 알아본 뒤, 각국별로 70개의 대표적인 가구를 선정한다. 그리고 이를 대상으로 한·중·일 전통가구의 유형별 기능적 특성과 조형적인 특성을 비교한다. 본문에서 사용된 표기방법에 있어서, 중국과 일본의 경우는 가급적 원어의 발음을 한글로 기록하고 괄호 안에 한자 또는 히라카나를 병기하였고, 필요에 따라서는 뜻의 이해를 돕

기 위해 우리말로 해석을 달았다. 그리고 한 단원 안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의 경우는, 첫 번째 단어에만 괄호 안에 한자 또는 히라카나를 표기하고 다음에 나오는 단어에는 그 표기를 생략하였다.

## 2. 한·중·일 전통가구의 유형

### 2-1. 한·중·일 전통가구의 유형 분류

가구의 유형을 분류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사용하는 공간에 따라 생활공간·접객공간·서비스공간 등의 공간별로 사용하는 가구를 분류하기도 하고, 용도에 따라 기거용가구·수장용가구·문방가구·주방가구·의식용가구 등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또한, Edward Luce-Smith는 기능에 의해 가구를 one sits on a piece of furniture·one puts things on it·sleeps or reclines on it·uses it for storage의 4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였다.<sup>1)</sup>

위와 같이 가구의 유형을 분류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서로 다른 문화권과의 상대적인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에 놓거나 올려놓을 '사물', 가구를 사용하는 '사람', 가구가 놓이는 '공간'과의 관계에 의해 가구의 기능적, 조형적 특성이 성립된다고 보고 사물(Object)·인간(Human)·공간(Space)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기능별로 가구를 분류해보기로 한다.<sup>2)</sup> 이에 따라 '가구-사물'과의 관계에서 가구를 기능별로 분류해 보면, 문짝이나 서랍이 부착되어 사물을 넣기 위한 것(Put things in : O1), 문짝이나 서랍 외에 선반이 부착되어 놓거나 올려놓기 위한 것(Put things in & on : O2), 선반이나 탁자류로서 사물을 올려놓기 위한 것(Put things on : O3)으로 구분하였다. '가구-인간'의 관계에서는 앉기 위한 것(Seating : H1), 휴식을 위한 것(Reclining : H2), 수면을 위한 것(Lying : H3)으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이 중에서 중국의 경우 황제의 의자인 빠오초오(寶座)도 H1그룹의 범위에 포함시켰으며, 한국과 일본의 경우 실제 앉기 위한 기능보다는 제례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의 의자류도 H1그룹으로 분류하였고, 이불이나 방석류는 본 연구에서의 분석대상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가구-공간'의 관계에서는 공간을 구획(Partition device : S1)하는 기능을 갖는 접이형 또는 직립형 칸막이로 한정하여, 불박이로 되어 있거나 벽의 기능이 강한 것은 제외하였고, 공간을 밝히거나 보온하기 위한 소품류도 제외하였다. 이 중에서 일본의 이코우(衣箱)는 의류를 걸어놓는 기능과 장식을 하는 파티션 기능을 겸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가구-사물(O3)'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위의 기준에 따라 한·중·일의 전통가구의 유형을 기능별로 분류해 보면 <표1>과 같다.

1) Edward Luce-Smith, *Furniture History*, p8

- one sits on a piece of furniture ; stools, benches and chairs
- one puts things on it ; tables and stands
- sleeps or reclines on it ; beds and couches
- uses it for storage ; chests or wardrobes

2) 국민대학교, *전통가구의 현대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산자부, 2003, pp40~41의 내용을 참조하여 정리

<표 1> 한·중·일 전통가구의 유형 분류

가구의 유형		국가	가구 종류
가구와의 관계	기능별		
O 가구-사물	1 Put things in	K 한국	장(箱), 농(籠), 궤 각계수리, 함, 뒤주, 소품
		C 중국	궤, 꾸에이(櫃), 쭈어(廚), 씨양(箱)
		J 일본	탄스(簞笥), 나가모치(長持), 카케스즈리(懸硯), 소품
	2 Put things in & on	K 한국	문갑, 사방탁자, 반닫이, 연상, 서안
		C 중국	거어궤(格架櫃)
		J 일본	타나(棚), 즈시(廚子)
	3 Put things on	K 한국	서안, 사방탁자, 친탁, 소반, 향안, 고비, 서건대
		C 중국	쭈어(卓), 지이(几), 안(案), 이짜(衣架)
		J 일본	즈쿠에(机), 다이(台), 쟈(講), 소쿠(卓), 퉁(盆), 이코우(衣箱)
H 가구-인간	1 Seating	K 한국	교의, 교상
		C 중국	퉁추우(椅子), 이쯔우(椅子)
		J 일본	코오이(交椅), 엔다이(縁台), 소오기(床几)
	2 Reclining	K 한국	평상, 보로, 궤, 목침
		C 중국	티아(榻), 로오한황(羅漢床)
		J 일본	쿄오소쿠(脇息), 마쿠라(枕)
	3 Lying	K 한국	-
		C 중국	짜이즈오황(架子床)
		J 일본	-
S 가구-공간	1 Partition device	K 한국	병풍
		C 중국	핑풍(屏風), 차이핑(插屏)
		J 일본	보오부(屏風), 츠이타테(衝立)

## 2-2. 한·중·일 전통가구의 유형별 특징

### 2.2.1 가구-사물(Object) 유형

가구-사물 유형에서 전반적인 한·중·일의 발달유형을 살펴 보면, 한국의 장과 비슷한 형태의 수납가구류는 삼국에서 모두 골고루 발달하였지만, 그 크기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에 비해 중국은 스케일이 큰 특징이 있다. 이는 실내공간의 천장이 높은 중국과 천장이 낮고 좁은 한국, 일본의 주거공간의 특성이 반영되고, 평면제단의 의복을 접어서 수납한 한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입체제단의 의복을 걸어서 수납하는 중국의 생활양식의 차이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여닫이문이 주로 달린 한국에 비해 서랍형의 수납을 많이 사용한 일본의 경우가 가구의 높이가 더 낮게 나타났다.

반닫이, 나가모치(長持) 등의 상자형 수납가구는 한국과 일본에서 주로 발달하였는데, 이는 좌식생활로 인해 높이나 크기가 작은 가구류가 발달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특히 재난에 대비한 이동성의 필요에 의해 손잡이, 고리, 바퀴 등이 부착된 가구가 발달하였다.

탁자류의 경우, 평좌식생활을 했던 한국과 일본은 이동성과 수납성이 강조되어 낮고 작은 크기의 책상이나 상 종류가 발달한 반면, 중국은 의자와 함께 사용하거나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높이가 높은 탁자류와 캉(炕)에서 사용하는 낮은 탁자류가 다양하게 발달한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사물 유형의 가구류에 있어 다리 부분의 특징을 살펴보면, 한국은 온돌의 온도차와 딱딱한 바닥재로 인해 다리가 부착되어 있기는 하나, 다리를 짧게 하여 평좌식 생활에 적합한 비례를 갖추도록 하였다. 그러나 입식 생활이 주를 이루는 중국의 경우는 실내공간의 천장이 높았으므로, 가구의 높이가 장대하고 다리 또한 길쭉하게 시원한 비례감을 보여 준다. 한편, 일본의 대부분의 수납가구에서는 그 기능이나 형태가 강조된 다리를 찾아보기 힘든데, 그 이유는 탄력이 있으면서 온도나 습도의 변화에 비교적 안정적인 다다미의 보급, 평좌식 생활로 인해 앉은 키 범위 안에서의 낮은 가구 배치, 필요에 따라 포개놓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던 점 등으로 인해 일본의 가구에는 다리가 불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중국이나 한국의 영향을 받아 다리의 구조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실용적인 목적보다는 장식적인 목적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의자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평좌식 생활이 중심이었던 한국과 일본은 사람들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고정되었으므로 사물의 정면이 주로 시야에 들어오게 되어 상자형의 수납가구는 대부분 전면의 의장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수납가구의 경우는 장식이 절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넓은 판재의 수납이 용이함에 따라 스케일감 있는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였다고 보여진다.

또한 형태적 특성을 보면, 한국과 중국은 대부분의 가구가 대칭형의 형태를 갖춘 반면, 일본의 경우 타나(棚) 종류는 의도적인 비대칭 구도를 갖는 특징이 있다.

가구의 이동성에 있어서, 중국은 규모가 큰 가구가 주를 이루어 대부분 정해진 위치에 고정적으로 배치하여 사용하도록 되어있는데 반하여, 한국의 경우 장 종류는 대부분 고정적으로 배치하면서 농이나 반닫이류는 계절의 변화나 필요에 따라 운반하기 편하도록 손잡이 등의 금구류가 부착되어 있고, 테이블류는 운반에 편리하도록 가벼운 재질로 제작되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빈번한 태풍이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운반이 어려운 큰 수납가구는 건축화 되고, 개별가구의 경우는 이동의 편리성이 강조되어 손잡이, 바퀴, 고리 등이 부착되거나 무게를 가볍게 제작한 것이 많다. 한편, 사물을 받치는 도구로서 탁(卓), 반(盤), 상(床) 등이 중국으로부터 전해져 왔지만, 한국과 일본의 경우 좌식생활이 정착되면서 탁(卓)은 대부분 제사나 의식 때만 사용하는 도구로 남게 되었다.

### 2.2.2. 가구-인간(Human) 유형

가구-인간 유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한·중·일의 특성 차이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입식 생활로 인해 의자류가 매우 발달했는데, 등받이와 팔걸이, 좌판, 다리의 유무와 결합구조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 등받이가 없는 퉁추우(凳子)와 초우퉁(坐墩)을 비롯해, 등받이가 있는 의자로는 팔걸이가 없는 까오뻬이이(靠背椅), 팔걸이가 있는 푸우쑤우이(扶手椅), 등받이가 원형으로 된 추앙이(圈椅), 다리가 X자형으로 접히는 짜아오이(交椅), 황제전용의 빠오초오(寶座) 등이 있다.<sup>3)</sup> 이렇게 다양하게 발달한 중국풍의 가구는 17, 18세기의

3) 胡德生, 胡德生談明清家具, 吉林科學技術出版社, 1998, pp33~34

유럽에서 유행하였는데, 이를 시노와즈리(chinoiserie)<sup>4)</sup>라 불렀으며, 특히 치펜데일 양식의 의자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평좌식 생활이 주를 이루는 한국과 일본의 경우는 의자류의 발달이 미흡했으며, 그 대신 평좌식 생활에서 신체를 의지할 수 있는 보조도구로서 베개나 팔받침류 그리고 이동식 평상이 발달하였다. 왕실이나 상류계층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의자가 사용되긴 했으나 이는 중국의 가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사용한 것이라 볼 수 있고, 그 외에 제례용으로 사용되었던 교의는 앉기 위한 기능 보다는 신위를 모시기 위한 기능으로 사용되어 높이가 높은 특징이 있다. 또한 눕기 위해 사용된 침상류는 입식생활을 주로 했던 중국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는데, 천개가 달린 침대는 방안에 또 하나의 방을 구성하여 폐쇄적인 중국의 주거양식과 유사성을 보인다. 한편, 한국과 일본은 침상류가 거의 발달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로는 한국에는 온돌, 일본은 탄력성 있는 바닥재인 다다미의 보급으로 그 필요성이 미약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 2.2.3. 가구-공간(Space) 유형

삼국의 실내공간 구획 특성을 살펴보면, 한국은 내부의 창호의 개폐에 의해, 중국은 여러 장의 패널로 만든 경량 칸막이의 배치여부에 의해, 일본은 필요에 따라 붙였다 다시 떼어낼 수 있는 반고정식의 칸막이에 의해 공간을 가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중·일의 가구-공간 유형의 특징을 살펴보면, 한국의 병풍은 공간구획을 위한 기능보다는 외풍을 막고 실내공간을 장식하기 위한 기능이 위주라고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환상상제 등의 의례적 행사에서 사용되기도 했다. 중국은 접이식 경량패널 또는 독립적인 파티션을 사용하여 공간을 구획하면서 장식하는 기능을 가졌고, 필요에 따라 접거나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본의 경우 마지키리(間仕切)라는 가변적 벽체에 의해 공간을 구획하고, 쇼오부(屏風)는 공간구획의 기능보다는 미술적인 가치를 더욱 중시하였다. 이와 같이 공간을 구획하는 기능의 정도 차이는 있으나, 한·중·일 모두 실내공간의 장식을 위한 목적이 강조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 2-3. 분석 대상 가구

본 연구에서는 앞장의 가구분류표에 준하여, 가구-사물, 가구-인간, 가구-공간으로 나누어 기능별로 가구의 유형을 분류하고, 이를 대상으로 한국, 중국, 일본의 전통가구의 유형별 기능적 특성과 조형적 특성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각국의 문화적 차이에 의해 동일 기능의 가구를 같은 양으로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각각의 나라별로 유형별 특징이 잘 나타나는 가구를 중심으로 총 70개씩 선정하였다. 선정된 사례 이미지에 고유인 일련번호를 부여하였는데, 가구와의 관계에 따라 O(Object), H(Human), S(Space)로 나누고 각 그룹별로 기능에 따라 아라비아숫자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K(Korea), C(China), J(Japan)로 나라를 구분한 후, 01로 시작되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였다.

4) 중국 취미, 중국풍 양식을 뜻하거나, 17세기부터 중국풍의 모티프를 여러 가지로 응용하는 움직임 또는 이러한 현상을 가리킨다.

비교분석을 위해 선정한 가구는 <표2>와 같다.

<표 2> 분석 대상 한·중·일 전통가구

가구와의 관계	기능별	K 한국	C 중국	J 일본
O 가구   사물	1 Put things in			
	2 Put things in & on			
	3 Put things on			
	1 Seating			

	2 Reclining		
	3 Lying		
S 가구 공간	1 Partition device		

### 3. 한·중·일 전통가구의 기능적 특성 비교

한·중·일 전통가구의 유형별 기능적 특성을 비교하기 위한 분석틀로는 '입식-좌식', '고정적-가변적'의 키워드를 사용하였다. 이는 가구의 기능적 특성을 분류할 수 있는 많은 고려사항 중에서 가구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생활양식과 가구가 놓이는 건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입식-좌식'은 가구를 사용하는 생활양식이 주로 입식인 경우와 좌식인 경우로 나누어 보았고, '고정적-가변적'은 가구가 건축화되거나 고정적으로 배치되는 경우를 고정적, 가구의 이동성이 고려되거나 가변적으로 배치되는 경우를 가변적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 3-1. 가구-사물(Object) 유형

가구-사물 유형 중에서 수납가구류인 O1(Put things in) 그룹에서의 특징을 살펴보면, 입식생활과 높은 천장의 실내공간으로 중국은 높이와 크기가 장대한 가구가 발달한 반면, 평좌식 생활이 이루어졌던 한국과 일본은 낮은 키를 기준으로 낮고 안정된 비례의 가구가 대부분이었으며, 여닫이문을 주로 부착한 한국의 가구에 비해 서랍을 많이 사용한 일본 가구의 높이가 더 낮은 특징을 보여준다. 즉, 한국과 일본은 좌식 실내공간에 맞는 크기의 낮은 높이의 수납가구를 고정적으로 배치한 것에 비하여, 중국의 경우는 입식생활에 맞추어 스케일이 큰 가구류가 고정적으로 배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한·중·일 모두 소품류의 작은 상자형 가구는 이동하기에 편리하도록 작게 만들어졌다. 한국의 반닫이나 농, 일본의 나가모치(長持) 등에서는 이동 및 가변의 편리성을 고려한 점을 찾아볼 수 있었고, 특히 일본의 경우는 빈번한 태풍이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바퀴, 손잡이, 고리 등이 부착되어 이동성이 강조된 가구가 발달되었다.

한편, 선반류라 할 수 있는 O2(Put things in & on) 그룹의 경우도 한국과 일본은 좌식 실내공간에 맞는 크기와 높이의

<표 3> 가구-사물(Object) 유형의 기능적 특성 비교

분류	이미지	그룹핑	한·중·일 비교
O1K			
O1C			
O1J			
O2K			
O2C			
O2J			
O3K			
O3C			
O3J			

선반류가 주를 이루는 반면, 중국은 키 높은 장식장류가 발달하였다. 한국의 경우 연상이나 서안 등에 서랍이 달린 경우를 O2그룹에 포함시킴으로써 일본에 비해 가변성 및 이동성을 추구한 그룹을 별도로 구분해 볼 수 있었으며, 일본의 경우 타나(棚)가 건축화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고정적인 특징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탁자류에 해당하는 O3(Put things on) 그룹의 경우를 보면, 한국은 선반으로만 구성된 사방탁자류를 O3그룹에 포함시킴으로써 고정적인 배치의 탁자류와 실의 용도에 맞추어 이동적으로 사용하기 편하도록 가볍고 작은 크기의 좌식 탁자류로 나누어 볼 수 있었으며, 중국은 대부분 의자와 합

게 사용하는 규모가 큰 입식 탁자류와 장식용 탁자류가 발달하면서도 추운 지방에서는 캉(炕)과 같은 독특한 구조의 난방방법이 발달하여, 캉 위에서 사용하는 좌식탁자가 발달하였다. 일본의 경우 한국과 마찬가지로 운반이 편리한 작은 크기의 좌식 탁자류가 다양하게 발달한 한편, 의류를 걸어놓는 기능과 장식용 파티션 기능을 겸하는 이코우(衣桁)를 O3 그룹에 포함시킴으로써, 고정적인 배치의 그룹이 형성되었다.

### 3-2. 가구-인간(Human) 유형

가구-인간 유형 중에서 의자류에 해당되는 H1(Seating)그룹의 경우, 좌식생활이 주를 이루는 한국과 일본은 의자류의 발달이 미약하여, 실생활에서 앉기 위한 목적보다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의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이 경우 중국의 양식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한편, 중국의 경우는 입식생활이 주를 이루면서 다양한 기능과 형태의 의자류가 발달하였으며, 등받이가 있는 좌구인 이즈

우(椅子)와 등받이가 없는 좌구인 등추우(凳子)가 대표적인 양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H1그룹은 고정적으로 배치되는 스케일이 큰 그룹과 유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작은 크기나 접는 구조의 그룹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휴식을 위한 가구류인 H2(Reclining)그룹의 경우 중국은 벤치 형식의 간이 침대류가 발달한 반면, 한국과 일본은 휴식을 보조하는 팔받침, 베개 등의 소품류가 많았다. 한편, 소품류의 보조도구 위주로 발달한 일본과는 달리 한국의 경우는 좌식의 평상과 보료가 가변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수면을 위한 침상류인 H3(Sleeping)그룹의 경우, 한국과 일본은 좌식생활의 이불류가 침대를 대신하여 발달하였으므로 가구 종류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중국은 천개가 달린 대규모의 침상류가 발달하여 실내공간 안에 또 다른 독립공간을 형성하였다.

<표 4> 가구-인간(Human) 유형의 기능적 특성 비교

분류	이미지	그룹핑	한·중·일 비교
H1K			<p>입식 좌식</p> <p>□ 한국 ○ 중국 ○ 일본</p>
H1C			
H1J			
H2K			
H2C			
H2J			
H3C			<p>입식 좌식</p> <p>□ 한국 ○ 중국 ○ 일본</p>

5) 바닥의 일부를 한단 높게 하여 아래에서 불을 뿜 수 있도록 한 온돌과 비슷한 구조의 난방

### 3-3. 가구-공간(Space) 유형

가구와 공간 유형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공간구획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공간의 가변성에 있어서, 한국은 계절이나 행사에 따라 내부의 창호의 개폐에 의해 공간을 융통성 있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별도로 가구에 의해 공간을 구획하는 경우는 드물었으며, 병풍의 경우도 공간을 구획하기 위한 기능보다는 장식적 목적이 강하다 할 수 있다. 한편, 실내공간의 규모가 한국이나 일본보다 큰 중국은 접이식 판벽 형태의 평풍(屏風)이나 직립식 형태의 차아핑(插屏) 등의 배치여부에 따라 공간을 가변적으로 구획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간의 장식 기능을 함께 하였다. 또한 일본은 공간구획의 필요에 따라 붙였다 다시 떼어낼 수 있는 반고정식의 칸막이에 의해 각 방의 규모와 용도가 결정되어지는 유기적 공간구성의 건축적 특징을 보여줌으로써, 보오부(屏風)의 경우 한국과 마찬가지로 공간을 나누는 기능보다는 장식적인 기능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와 같이 한·중·일 모두 공간의 장식기능이 강조된 파티션이 주를 이루었던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삼국 중에서는 중국의 경우가 가장 공간구획의 기능을 겸비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5> 가구-공간(Space) 유형의 기능적 특성 비교

분류	이미지	그룹핑	한·중·일 비교
S1K			<p>입식 좌식</p> <p>□ 한국 ○ 중국 ○ 일본</p>
S1C			
S1J			
S1K			

#### 4. 한·중·일 전통가구의 조형적 특성 비교

한·중·일 전통가구의 유형별 조형적 특성을 비교하기 위한 분석틀로는 '자연적-인위적', '단순함-복잡함'의 키워드를 사용하였다. 이는 가구의 조형적 특성을 분류할 수 있는 많은 고려사항 중에서 가구의 형태, 재료, 색채, 마감, 장식, 문양, 구조 등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자연적-인위적'에서는 자연적인 형태를 그대로 살리거나, 자연적인 재료의 색채를 유지한 마감, 자연물을 형상화한 문양 등을 사용한 경우 자연적, 그렇지 않은 경우를 인위적인 것으로 나누어 보았다. '단순함-복잡함'에서는 가구의 형태, 색채, 장식, 문양 등이 직선적, 평면적, 대칭적, 면적구성, 소박미를 나타내는 것을 단순함으로, 곡선적, 입체적, 비대칭적, 선적구성, 화려함을 나타내는 것을 복잡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 4-1. 가구-사물(Object) 유형

가구-사물 유형 중 O1(Put things in) 그룹의 특징은 '크게 수납가구와 상자형 소품가구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한·중·일 모두 수납가구의 경우 자연적인 목리문을 살린 투명한 옷칠마감의 단순한 장방형의 형태이면서 장식이나 문양을 적용한 정도에 따라 복잡함과 단순함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반하여, 대체적으로 소품류의 경우 화려한 마감에 의한 장식이 두드러졌다. 구성방식에 있어서 넓은 판재를 구하기 힘들었던 한국의 경우는 좁은 면과 골재가 격자로 대칭적인 면 구성을 이루면서 자개나 금구장식 등의 장식부재를 따로 부착하여 반입체적인 장식을 하거나, 곡선을 이용한 풍혈 구조 등을 가미하여 직선적 형태의 딱딱함을 완화시켰다. 그러나 비교적 양질의 넓은 판재를 구하기 쉬웠던 중국과 일본은 넓은 면으로 구성된 가구가 많이 제작되었으며, 그 중에서 중국은 내부에 선반을 설치하여 공간을 분할하고 전면의 문짝은 넓은 면으로 대칭적 구성을 하여 한·중·일 삼국 중에서 가장 단순함을 보여주었고, 투명한 마감이 주를 이루면서도 다양한 색상의 불투명 도장이 발달하여 화려한 가구를 제작하였다. 한편, 일본은 단순한 직선 구조의 지루함을 덜어 주기 위해 비대칭적인 구성이나 화려한 금구장식 부착, 마끼에(蒔繪)<sup>6)</sup>, 쓰이슈(堆朱) 조칠(彫漆)기법<sup>7)</sup> 등의 마감법을 많이 사용한 경우와, 전혀 다른 양식의 간소하고 소박하게 마감을 하지 않거나 투명 또는 짙은 색의 반투명 마감을 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O2(Put things in & on) 그룹의 경우 한·중·일 삼국 모두 자연적인 소재를 살린 마감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장식을 가미했으나, O1 그룹에 비해 화려한 장식은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직선적인 구조의 단순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선반류가 대부분이었고, 한국의 경우 금구장식 보다는 투각이나 반입체 조각에 의한 장식으로 단순함을 완화시킨 사례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중국은 수납가구에 비해서는 장식을 적용한 경우가 많았으나, 그다지 화려한 편은 아니었다. O3(Put things on) 그룹의 경우는 한·중·일 삼국이 각각 다

6) 칠로 무늬를 그리고 칠이 마르기 전에 금, 은가루나 채색분을 뿌려 꾸미는 기법으로서, 시적인 풍취의 회화적 문양을 중심으로 일본 특유의 감성을 표현하는 일본 고유의 칠 기법  
7) 주칠(朱漆)을 두껍게 거듭 칠하고 무늬를 조각한 것

른 특징을 보여주었는데, 한국의 경우 자연스러운 마감을 주로 사용하면서 형태에서는 직선적인 소박한 것에서부터 곡선이나 투각을 적용한 비교적 화려한 것까지 다양하게 분포하였다. 중국의 경우 수납가구에 비해 조각을 많이 적용하거나 선적인 구성요소를 주로 사용한 테이블류가 주를 이루었는데, 이는 탁자류와 함께 사용되는 의자류의 조형양식과 일체감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직선적인 문양과 곡선적인 문양에 따라 복잡함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일본의 경우 실용적인 용도의 탁자나 소품류는 형태가 단순한 반면, 상징적·장식적 기능이 강조된 다이(台)나 이코우(衣桁)의 형태는 곡선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특히 이코우(衣桁)나 소품류에는 마

<표 6> 가구-사물(Object) 유형의 조형적 특성 비교

분류	이미지	그룹핑	한·중·일 비교
O1K			
O1C			
O1J			
O2K			
O2C			
O2J			
O3K			
O3C			
O3J			



끼에 등의 화려한 마감이 사용되었다.

#### 4-2. 가구-인간(Human) 유형

가구-사람 유형의 H1(Seating)그룹은 기능적인 특성에서 나타난 바와 마찬가지로, 한국과 일본은 중국의 양식을 그대로 사용한 의식용 의자류와 소박한 형태와 자연미를 느끼게 하는 일상생활에서 사용된 의자류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한편, 중국은 다른 유형의 가구에 비해 다양한 형태의 의자류가 발달했는데, 직선이나 사각형으로 이루어진 방형의 의자류와 원통형이나 타원형 등의 곡선으로 둥굴린 각재, S자형 또는 C자형 다리, 곡선형의 의자 등받이나 팔걸이 등 가구 자체의 형태가 곡선적인 의자류가 골고루 발달하였다. 또한 장식체를 따로 쓰지 않고 구조재 자체에 조각을 하거나 짜임을 하여 입체적인 장식을 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안정된 구조미와 장식미를 느끼게 하며, 동선이 자유로운 입식생활의 영향으로 측면과 후면까지 장식되어진 경우가 많다. 이러한 다양한 구조와 형태가 발달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과시적인 장식이 주를 이루면서 고도의 가공기술이 발달한 것과 경질의 목재를 많이 수입하면서 선적인 구성이

주를 이루는 세목(細木)가구가 발달할 수 있게 된 것을 들 수 있다.

H2(Reclining)그룹의 경우 벤치형태의 가구류가 발달한 중국은 의자류와 마찬가지로 화려한 구조의 장식이 가미되면서 다양한 자연재료를 사용한 것이 주를 이루었다. 한편, 한국의 경우는 자연적인 목재의 소재감을 살리는 투명마감에 투각 등의 장식이 사용된 것과 패브릭이 주로 사용된 보료에서는 전혀 다른 재질감을 찾아볼 수 있었다. 한편, 일본의 경우 소품류가 주를 이루면서, 기하학적 문양의 투각을 적용한 단순한 형태에 자연소재감과 패브릭을 적절하게 조합하여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H3(Sleeping)그룹의 경우 중국에서만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으므로, 한·중·일을 비교할 수는 없었지만, 중국의 침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자연적인 소재와 문양을 사용하면서 화려한 장식과 패브릭을 가미한 것이 주를 이룬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7> 가구-인간(Human) 유형의 조형적 특성 비교

분류	이미지	그룹핑	한·중·일 비교
H1K			<p> <input type="checkbox"/> 한국  <input type="checkbox"/> 중국  <input type="checkbox"/> 일본         </p>
H1C			
H1J			
H2K			
H2C			
H2J			
H3C			

#### 4-3. 가구-공간(Space) 유형

가구-공간 유형의 조형적 특징을 실내장식적 측면과의 관계에서 살펴보면, 한국은 유교의 영향으로 방 내부가 단순한 면으로만 구성되어 소박한 절제미를 보이는 것에 맞추어 직선적인 형태의 병풍이 주를 이루며 이러한 실내에 활기를 넣어주면서도 너무 화려하지 않은 사군자나 화조도 등의 회화적 장식이 주를 이룬다. 한편, 중국의 평풍(屏風)이나 차아핑(插屏)의 경우는 화려한 의자류나 탁자류와 어울리도록 곡선적인 투각이나 부조장식이 부착되어 과시적인 장식의 실내의장의 특성을 보이고, 일본은 오오히로마(大廣間) 실내의 곳곳에 금박을 입히고 화려한 마끼에(蒔繪) 장식의 가구로 치장하는 실내장식에 맞추어 금박의 마끼에로 화려하게 장식한 보오부(屏風)와 소박하고 단순한 직선적인 형태와 구조의 츠이타테(衝立)가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가구-공간(Space) 유형의 조형적 특성 비교

분류	이미지	그룹핑	한·중·일 비교
S1K			<p> <input type="checkbox"/> 한국  <input type="checkbox"/> 중국  <input type="checkbox"/> 일본         </p>
S1C			
S1J			

#### 5. 결론

이상으로 한·중·일의 전통가구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그에 따른 기능적 특성과 조형적 특성을 비교해 보았다. 위와 같이 한·중·일의 가구를 유형별로 분석해 본 결과,

대부분 일반적인 한·중·일의 전통가구의 특성과 유형별 특성이 일치하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한·중·일에 공통적으로 유사점이 나타나는 유형과 두 나라에 유사점이 나타나는 유형, 삼국이 각각 다른 특성을 나타내는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기능별 특성을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은 사물의 수납을 위한 가구류(O1, O2)가 발달한데 비해, 중국은 입식생활로 인해 가구의 종류가 다양하게 발달되었고, 특히 의자(H1)와 탁자(O3), 침상류(H3)의 가구가 다양하게 발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중에서 O1그룹과 O3그룹은 한국과 일본이 좌식생활에 맞는 가변성이 고려된 그룹과 고정적으로 배치하는 그룹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으며, 중국은 입식생활에 맞는 고정적 특성을 나타낸다. O2그룹의 경우 한국과 중국은 비교적 O1그룹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반면, 일본의 경우 고정적인 배치의 특성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H1그룹의 경우 한국과 일본은 독자적인 유형의 발달이 미흡했으므로 양적으로 중국과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으며, 기능에 있어서도 실생활에서 앉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중국과는 달리 한국과 일본은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H2에 있어서 중국은 실제로 눕고 휴식할 수 있는 가구류가 주로 발달한데 비하여, 한국은 팔걸이, 베개 기능의 보조도구와 평상 등의 가구류가 고루 발달하였고, 일본은 주로 보조도구가 발달하였는데, 이는 바닥재의 차이에서 오는 결과라고 추측된다. 그리고 S1그룹의 경우 중국은 공간을 구획하는 기능과 장식의 기능을 동시에 추구한데 반하여, 한국과 일본은 공간구획보다는 장식을 위한 기능이 강조된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공간의 규모와 건축에 있어서 공간구획방식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조형적인 특성에 있어서 각국별로 형태, 재료, 마감, 문양, 장식, 구조 등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며 전체적인 조형특성을 형성하였다. O1그룹과 O2그룹에 있어서 한·중·일은 자연적인 목리를 살린 마감과 장방형의 단순한 형태, 금구장식을 이용한 점 등 비교적 유사한 조형적 특징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중국의 경우가 넓은 면분할을 위주로 하여 가장 단순함을 보였고, 일본의 가구에는 화려한 금구장식이 많이 사용되어 가장 복잡한 경향을 보였다. 한편, 소품류에서는 삼국 모두 다양한 마감법이나 조각에 의한 화려함을 추구하는 경향을 함께 보이고 있다. O3그룹에서는 삼국이 각각 다른 특성을 나타내는데, 중국의 경우 의자류와 함께 사용하는 탁자류의 특성상 조형적 특징에 있어서도 의자류와 유사한 화려함을 찾아볼 수 있었으며, 한국과 일본은 중국보다는 단순하지만,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서는 곡선적인 형태를 사용한 비교적 다양한 조형적 특성을 나타내었고, 특히 일본은 마감에 있어서 화려함을 추구하는 것과 소박함을 추구하는 것으로 확연하게 나누어볼 수 있었다. 사물-인간 유형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경우 독자적인 발달이 미흡했으므로, 중국을 위주로 조형적 특성을 분석해 볼 수 있었다. 중국의 경우 다른 유형의 가구에 비해 H1, H2, H3그룹의 가구는 형태, 마감, 장식, 구조 등 모든 면에 있어서 가장 다양하고 복잡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이는 고도로 발달된 기술과 재료의 수급이 뒷받침된 결과라 할 수 있다. S1그룹의 경우 소박함을 느끼게 하는 한국의 병풍과는 달리 일본은 단순한 직선

적 구조의 것과 마끼에를 사용하여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으며, 중국은 입체적인 형태에 의해 화려함을 추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한·중·일의 전통가구를 이상과 같이 비교해 보았는데, 역사적으로 서로의 문화교류가 빈번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차이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각 나라마다 다른 지역적, 사회적 영향을 받아 각각의 상황에 맞도록 변형, 발전된 결과라 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보이는 유사점은 동양적 특징으로 규정지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비교연구를 계속 한다면, 동양문화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의 정체성에 대한 보다 올바른 해석과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김삼대자, 전통 목가구, 대원사, 1994
- 미셸비르틀리, 김삼대자 역, 중국의 가구와 실내장식, 도암기획, 1996
- 박영규, 한국의 목가구, 삼성출판사, 1982
- 배만실, 한국목가구의 전통양식,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8
- 손세관, 깊게 본 중국의 주택, 열화당미술책방, 2001
- 손세관, 넓게 본 중국의 주택, 열화당미술책방, 2001
- 한옥공간연구회, 한옥의 공간문화, 교문사, 2004
- 藤田勝也, 日本建築史, 昭和堂, 1999
- 小泉和子, 家具と室内意匠の文化史, 法政大學出版局, 1979
- 小泉和子, 道具と暮らしの江戸時代, 吉川弘文館, 1999
- 小泉和子, 收める, 青森市歴史民俗展示館, 2000
- 小泉和子, 室内と家具の歴史, 中央公論社, 1995
- 小泉和子, 日本史小百科-家具, 東京堂出版, 1995
- 小泉和子, 和家具, 小學館, 1996
- 小泉和子, 簞笥, 法政大學出版局, 1998
- 太田博太郎, 日本建築様式史, 美術出版社, 1999
- 平井聖, 生活文化史, 放送大學教育振興會, 1998
- 胡德生, 胡德生談明清家具, 吉林科學技術出版社, 1998
- Maudsley, Classical and Vernacular Chinese Furniture in the Living Environment, Yungmingtang, 1998
- Kazuko Koizumi 저, Alfred T. Birnbaum 역, Traditional Japanese Furniture, Kodansha International, 1986
- Jinok KIM, Kyungran CHOI, Comparative Study on Korean and Japanese Traditional Furniture Design - Based on the residential behavior related to floor sitting, Journal of the Asian Design International Conference Vol.1, 2003
- 국민대학교, 전통가구의 현대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산자부, 2003
- 김진옥, 생활문화를 반영한 일본의 현대가구디자인, 가구저널, 2003. '3